

“누워서 돈 벌자” 탈선 일가족 병원 순례하며 입·퇴원 반복

보험범죄 뿌리뽑자

진화하는 사기 수법

#1. 8년동안 허위·과다 입원하며 보험금 25억원을 부당 수령한 세 자매와 그 일가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A(여·61)씨 등 일가족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여간 광주와 전남, 전북의 병·의원에 허위 입원해 15개 보험사로부터 25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들은 입원 일당이 고액인 건강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협심증과 무릎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29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이들은 무더기로 같은 기간에 같은 병원에서 입·퇴원한 횟수가 55회에 달할 정도였고, 가족끼리 수시로 의술을 나가 소평과 의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진도경찰은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B(3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한씨의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C(32)씨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신고해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교통사고 허위신고 보험금 타고 허위 진료기록부 등 탈법 만연

상반기 적발 금액만 160억원

#3. 한의사 D씨는 지난 2006년 4월 19일부터 지난해 4월 7일까지 '기타 어깨 병변 중'으로 진료한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찰료·처치료 등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2만280원을 받는 등 실제 병원에 오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총 735회에 걸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135만여원을 가로챘다.

보험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6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중한 범죄이지만, '보험금은 씌지돈'이라는 인식 탓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는 모두 81건(광주 29건·전남 52건)으로, 검거자는 215명(광주 62명·전남 153명)이다. 피해액은 1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건수 293건(광주 218건·전남 75건), 검거자 700명(광주 355명·전남 345명), 피해액 316억원(광주 124억원·전남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지

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3105억원)보다 12.1% 늘어난 3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를 경신한 액수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4만54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만960명)보다 2.2% 줄었다. 하지만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869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8만 원)에 비해 14.6%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이 늘어난 것은 강화된 보험가입기록 조회 시스템, 보험사기 상시감시 시스템 및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 등이 도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 국제화되고 있어 위험하다. 또 청소년·직장인·주부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게 점차 일반화되는 경향이다. 이 때문에 일가족이 한 순간에 '보험사기 전과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활용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는 속칭 '가파'도 늘어나고 있고, 허위 입원을 들켜지 않기 위해 본인의 휴대전화는 병원에 두고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주변에 보험사기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하면 반드시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1일 광주시 북구 임동주교좌성당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육현진 총대리주교 주례로 진행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추모미사가 열린 가운데 신자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긴 세월 진 심자가 내려놓고 영면하길...”

조비오 신부 애도 물결

신자·시민 발걸음 추모미사 윤장현 시장 등 조문 행렬 고인 유지 살려 '쌀 조화'

21일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지역의 큰 어른이었던 조비오 신부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 애도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광주시 북구 임동주교좌성당 지하에 마련된 빈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등 인사들과 생전 지인들이 조문을 나섰던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육현진 총대리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된 조비오 신부 첫 추모미사에는 200여명의 천주교 신자와 시민들이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깊은 뜻을 기렸다. 일부 신자와 시민들은 미사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육현진 총대리주교는 미사에서 "이제

긴 세월 지셨던 심자가 내려놓으시고 하느님 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이날 시민들은 빈소가 마련되기 전부터 광주 성요한병원과 임동주교좌성당을 찾아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다. 빈소에는 평소 고인의 유지를 살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조화 대신 받고 있는 '쌀 조화'가 줄을 잇고 있다.

빈소에 놓인 조비오 신부의 영정 사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고인이 평생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소화자매원 이름의 조화가 놓였다.

소화자매원 원장인 곤솔라라 수녀는 "조비오 신부님은 소화자매원을 위해 후원회를 만들고 평생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4박5일 일정으로 몽골 출장길에 오르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황급히 임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시장은 "큰 별이 지고 나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조비오 신부의 평생 벗이자 민주화운동의 동지였던 정규안 신부는 "5·18 때 31사단 영창에 함께 갇혔던 일, 유신시절 서울에서 열리는 기도모임에 참석하려다가 형사들에게 붙들렸던 기억 등이 떠오른다"며 "교회 안에서는 중심을 잡는 위치에 계셨으면서도 시국에는 소홀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난 김준태 시인은 "조비오 신부님은 광주항쟁의 영적 지도자로 몸으로 증언하고 증거하고 싸워온 분"이라고 기억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산증인으로서 불의에 항거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신 광주의 어른께서 유명을 달리하심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고귀한 뜻이 계속될 전도도록 교육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저수지 10곳 중 2곳 농사용으로도 못써

광주·전남 43곳 수질 부적합

광주·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10곳 중 2곳가량은 농사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 기준 초과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저수지 234곳 중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IV등급(약간 나쁨) 초과 저수지가 43곳으로 18.4%에 달했다.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최악의 수질인 VI등급(매우 나쁨)도 22곳(9.4%)이나 됐다.

수질도 매년 악화돼 IV등급 초과 비율이 2011년 7.5%에서 2012년 10.4%, 2013년 15.0% 등 매년 나빠지고 있다.

광주 조사 대상 저수지 4곳 가운데 풍암

저수지가 매우 나쁜 수준인 VI등급이며, 전남은 조사 대상 저수지 230곳 중 장흥 서산, 덕촌, 강진 사나호 등 21곳이 최저 등급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 저수지 975곳 중 22.6%에 해당하는 220곳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가 및 시·군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1만7423곳 중 용역조사량이 50만 이상 또는 수해면적이 30ha 이상인 국가관리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20만 이상이거나 수해면적이 30ha 이상인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 매년 수질 조사를 하고 있다.

수질 등급은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총 7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수 관리 권고 기준을 최소 5번째 등급인 '약간 나쁨'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갑질' 특별단속 17명 검거

나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A(59)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10시께 "경비원 주체에 남의 장사를 방해하느냐"며 아파트 경비원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유는 60대인 경비원이 아파트 출입의 혼잡을 줄이고자 상가 앞에 주차할 수 없도록 라바콘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갑(甲)질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7건을 적발, 17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갑질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정부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 남풍·입찰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일까지 17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자치단체 등에 7건을 행정통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민주화 헌신 조비오 신부 훈장 추서 추진

차명석 5·18재단 이사장 "광주시와 논의...정부 건의"

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조비오 신부에 대한 훈장 추서가 추진된다.

21일 빈소를 찾은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은 "광주시와 논의해 정부에 훈장 추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차 이사장은 "조비오 신부님은 5·18 당시 수습대책위원회 활동부터 진상규명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5월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라며 "5·18기념재단 출범 전 지역사회와 갈등을 봉합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아 5·18의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정

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 조비오 신부님께 훈장을 추서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이날 공동 애도성명을 통해 "고인은 5·18 당시 광주가 고립무원이 된 극한의 상황에서도 수습위원으로 죽음의 행진을 비롯한 진실을 밝히고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며 "고인은 민주회복과 남북화해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투신했던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이웃에게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어 "고인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5·18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민원인에 아동 전송 공무원 '혁'

영광군청 공무원이 실수로 낫뜨거운 등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전송해 망신.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최근 별거벗은 남녀가 유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 영상을 B씨에게 실수로 전송했다가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B씨는 민원 상담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A씨로부터 유란 영상이 받았는데, A씨는 "동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보낸다는 것이 잘못 보낸 것 같다. 아무튼 죄송하다"고 해명했지만, 군청은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인지를 따져본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

/영광=박형진기자 pyi4079@

평택 토지 전문 (평택 신도시 530만평) (한미지구70만평)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대 후회 없습니다.

평택 토지 매매

- ① 평택 고덕면 당현리 (고덕신도시 5분) / 토지 613평 ▶ 매가 5억 8천 235만
- ② 평택시 고덕면 동천리 (고덕신도시 5분) / 2,223평(평당 35만) ▶ 매가 7억 8천 178만
-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고덕신도시 5분) / 775평(농림지역) 도로 물림, 계획관리지역 옆 ▶ 매가 8억 5,250만
- ④ 진위면 마산리 / 314평 (투자 A급) 진위역과 LG산단, 마산단지 지반 ▶ 매가 3억 7천 680만
- ⑤ 진위면 마산리 / 301평(전) 마산산단 25만평 정문 앞쪽 ▶ 매가 5억 2천
- ⑥ 평택시 지산동 (송탄 터미널 3분) 빌라, 오피스텔 개발부지 추천 / 193평 ▶ 매가 12억 6천만

평택 경매 전문

■ 현덕면 화양리 (농지) → 토지 4,522㎡ → 당현마을 위치, 농로 물림 ■ 감정가 22억 → 최저가 7억4천4백

■ 진위면 동천리(임야) → 토지 25,172㎡ → 동천 보건소 인근, 차량접근가능 ■ 감정가 16억 → 최저가 11억

■ 오성면 양교리(근린시설) → 토지 19860㎡, 건물 2376㎡ → 자동차 영업소, 오성산업단지 인근 ■ 감정가 53억 → 최저가 37억

■ 평택시 이충동(의료시설) → 토지 8878㎡, 건물 2132㎡ → 아파트밀집지역 ■ 감정가 14억 → 최저가 10억

■ 청북면 백봉리(공장) → 토지 3624㎡, 건물797㎡ → 원백마을 인근 ■ 감정가 15억 → 최저가 10억

■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공장) → 토지 1,205평 건 654평 → 마산상거리 인근 ■ 감정가 30억 → 최저가 21억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을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물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용 3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분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 ① 서구 치평동 (10층 오피스상가) 토 25평, 건146평 10층 중 10층 (상무지구 최고 변화가 위치) ▶ 감정가 8억7천 → 최저가 4억9천
-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9평 신가중 부근 룸 8개 - 월수익 250만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
-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인근,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4억9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을으면서 실천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천 교육 ☆ 바로 실천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지권, 가정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천 경험자 우대, 환영

062-527-7600

010-6834-4800